

## 남북한 및 중국 조선족 역사소설의 갈등양상 비교

--- 『북간도』, 『두만강』, 『눈물 젖은 두만강』을 중심으로

서영빈

### 1. 서론

본고는 한민족 수난의 상징인 “만주” 이주민들의 삶을 소재로 다룬 한국, 북한, 중국 조선족의 해방 후 장편 역사소설들의 갈등양상에 대한 비교고찰을 통해 이 세 개 지역 한글문학의 공통성과 변별성을 밝히고 그러한 변별성이 형성된 원인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하여 본고는 한국문학, 북한문학, 중국 조선족 문학 가운데서 가장 대표성을 지닌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여 비교연구를 시도한다. 비교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가의 대표성, 작품 제재의 상관성, 작품 시공간의 일치성, 작품 형식의 동일성, 창작방법의 공통성을 고려한 결과 한국문학으로 안수길의 『북간도』, 북한문학으로 이기영의 『두만강』, 그리고 중국 조선족 소설로 최홍일의 『눈물 젖은 두만강』을 비교 연구의 텍스트로 선정하였다. 이 세 작품은 모두 리얼리즘의 창작방식으로 같은 시대를 역사배경으로 하여 “만주” 이주민들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고, 공통되게 가족사소설의 형식을 띠고 있으며, 모두 대하소설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 세 소설은 궁극적으로 “민족적 정체성 지키기”의 서사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북간도』는 구한말에서 광복까지의 간도 지역을 배경으로 조선 이주민들의 삶과 만주 개척사를 형상화함으로써 민족의 수난사와 민족해방투쟁을 구체화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두만강』은 19세기 말부터 1930년대 초까지의 한반도와 “만주”를 주무대로 식민지 자본주의화 과정을 형상화하면서 한국 민중의 계급해방투쟁을 구체화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눈물 젖은 두만강』은 구한말인 1860년대 말부터 1907년까지의 간도를 배경으로 우리 민족의 피어린 간도개척사를 구체화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눈물 젖은 두만강』은 상, 하 두 권으로 나뉘는데 총 19장에 80여 만자에 이르는 대작이다. 작품의 분량은 『북간도』보다 조금 더 긴 편이다. 구한말인

1860년대 말부터 1907년 일본이 용정에 통감부 임시 간도 파출소를 설치하기까지 약 40년간의 간도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서사시간으로 봤을 때 정확히 『북간도』의 1,2부에 해당하는 시간이라 하겠다.

갈등은 주체와 객체간의 상호 작용에서 생겨나는 것이며 그것은 언제나 일정한 “관계”를 전제로 한다<sup>1</sup>. 로버트 노오드(Robert C. North)에 따르면 갈등은 개인과 개인 사이, 개인과 조직, 개인과 집단간, 집단 사이, 한 조직체내에서의 개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갈등은 둘 이상의 개인들이나 집단들이 동일한 대상을 취하려 할 때 또 동일한 공간이나 자리를 차지하려 할 때 빚어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sup>2</sup>. 또 한 가지는 양립하기 어려운 목표나 수단을 서로 가지려 하는 점이다.

갈등구조는 소설의 가장 본질적인 구조<sup>3</sup>로서 소설은 갈등관계를 드러내는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라스포트는 갈등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각도에서 분류하고 있다.

<가> 내인성(內因性) 갈등: 이때의 갈등은 전체적인 평정상태의 한 부분에서 지나지 않는다. 하위 존재들 사이의 갈등을 통제하거나 조절하는 상위의 메커니즘이 있다. 예를 들어 두 도시의 시민이 심한 갈등을 보이면 국가가 조정해 준다. 종교적 갈등이나 계급갈등도 이 유형의 좋은 예가 된다.

<나> 외인성(外因性) 갈등: 통제나 조정을 해 줄 상위 메커니즘이 없는 갈등을 말한다. 예컨대 국가간의 분쟁, 민족적 대립 등이 그것이다.

<다> 균형적 갈등: 비슷한 입장이나 수준에 있는 개인들이 혹은 세력들이 보이는 갈등 형태를 말한다. 예를 들면 부부 싸움이나 비슷한 힘을 지닌 국가들 사이의 분쟁이 있다.

<라> 균형과괴적 갈등: 세력 차이가 뚜렷한 존재들 사이의 갈등을 말한다. 이 갈등은 반란이나 혁명으로 발전되는 수가 많다. 어느 한쪽이 이기고 어느 한쪽이 무릎을 꿇는 식으로 나타나기 쉽다.

<마> 논쟁지향적 갈등: 이기고 지는 것도 뚜렷하지 않고 균형유지적인 성격이 짙은 갈등양태.

<바> 구조지향적 갈등: 이 갈등은 체제가 변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소가 되지 않는다. 혁명은 항상 구조지향적 갈등 형태라 할 수 있다.<sup>4</sup>

---

<sup>1</sup> L. A. 코우저, 『갈등사회학의 기능』 (박재환 역), 한길사, 1980년, p. 26

<sup>2</sup> 로버트 노오드, <정치적 위상에서의 갈등론>, 『사회과학대사전』 (데이비드 실리스 편) (조남현, 『한국소설과 갈등』, 문학과비평사, 1988년, p. 17에서 재인용)

<sup>3</sup> 조남현, 『소설원론』, 고려원, 1983, p. 52

<sup>4</sup> Anatol Rapoport, Conflict in man-made environment Penguin books, 1974, pp. 175-176 (조남현, 『한국소설과 갈등』, 문학과비평사, 1988년, pp. 24-25에서 재인용)

조남현은 이러한 갈등 관계에서 <가>, <다>, <마>가 동일한 성격으로 묶여질 수 있고, <나>, <라>, <바>가 동일한 지평 위에 놓이게 된다고 하면서 한국 개화기 소설에 나타난 동학군, 의병 등의 존재와 1920, 30년대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주의자들은 <나>, <라>, <바>의 갈등 유형과 연결 짓는 가운데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sup>5</sup>.

한편 소설 속에서의 갈등은 서로간의 상호 다른 이해나 견해, 이익, 처지 때문에 발생한 표면상의 직접적인 충돌을 지칭하는 것이지 상반되고 적대적인 두 힘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갈등이 성립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면 소설 속의 갈등은 적어도 상반된 성격을 가진 둘 혹은 그 이상의 힘들이 동태적으로 움직일 때 표현된다고 하겠다.

역사소설에서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갈등은 세계간의 대립과 개인과 세계 사이의 대립이라 할 수 있다. 중도적 인물 내지는 평범한 인물이 그 대부분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역사소설<sup>6</sup>에서 세계간의 대립은 결국 각각의 세계를 대표하는 몇몇 인물들간의 대립으로 형상화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물들의 대립양상을 고찰함으로써 세계간의 대립의 면모를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갈등이론에 비추어 상기 세 소설을 분석했을 때 우리는 이 세 소설의 갈등구조가 서로 겹치면서도 주안점이 서로 다름을 파악하게 된다.

## 2. 민족갈등 중심의 서사 -- 『북간도』

안수길의 『북간도』는 “①만주 이주민의 삶을 사실주의적 전통 속에서 복원한 역사의식 ②만주라는 공간 속에서 벌어진 타민족과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해가는 주체성을 고취한 민족의식 등을 통해서 한국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으로 평가 받았다.”<sup>7</sup> “만주” 이주민들의 삶을 리얼하게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안수길의 『북향보』 역시 마찬가지로 평가를 들을 수 있다. 문제는 민족의식이다. 안수길의 『북간도』는 『북향보』에서 내비쳤던 친일 또는 부일적인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어두운 과거의 기억 속 부채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작가의 의지로서 그러한 의지는 바로 소설 속에서 갈등관계를 통해 구체적으로 체현되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간도』가 안수길의 작가적 원형질을

<sup>5</sup> 조남현, 『한국소설과 갈등』, 문학과비평사, 1988년, p. 25

<sup>6</sup> 백낙청, <역사소설과 역사의식>, 『한국근대문학사론』(임형택, 최원식 편), 한길사, 1982, p. 93

<sup>7</sup> 김종욱, <역사의 망각과 민족의 상상>, 『국제어문』 30집, 2004년

이루고 있는 만주 체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라는 김윤식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북간도』는 이한복 - 장손 - 창윤 - 정수로 이어지는 가문의 역사가 서사의 기둥으로 위치해 있는 소설이다. 이한복 일가를 중심으로 하여 최철성 일가와 장치덕 일가가 벌이는 협력과 갈등, 화해와 투쟁이 작품의 전편을 채우고 있다.

『북간도』의 서사적 추동력은 바로 이와 같은 가족사적 서술에 있다고 하겠다.

『북간도』를 분석할 때 연구자들은 흔히 이 5 부작의 작품을 전반부와 후반부 두 개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그것은 김윤식의 경우처럼 1, 2, 3 부가 발표된 후 만 4 년 뒤에 4, 5 부가 발표되었다는 실증적 차원에서부터 시작하여 연역적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도 그렇고, 김종욱<sup>8</sup>의 경우처럼 작가가 “만주”에서 생활하던 1920 년대 중반부터 1945 년 해방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을 묘사한 4, 5 부에서 작가의 다양한 만주 체험과 만주의 일상적인 생활이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주목하는 경우에도 그렇다. 이러한 현상은 작품의 갈등구조를 통해 고찰해보아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북간도』 1, 2, 3 부의 무대는 간도 비봉촌이다. 여기에서 작가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사잇섬 농사를 짓던 1 세대의 이주 원인에서부터 간도의 비봉촌에 정착하고 그곳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이주 농민들의 일상을 중심으로 매우 핏진하고 역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농민들의 일상이 전반부의 중심축을 이루고 역사적 사건은 배경으로만 배치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반부의 갈등은 주로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하나는 청인들과의 갈등이고, 다른 하나는 이주민들 사이의 갈등이다. 청인들과의 갈등은 동족 외적 갈등이고 이주민들 사이의 갈등은 동족 내적 갈등이 된다.

제 1 부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흑복변발과 청국입적 강요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이주민 제 1 세대들의 운명이 엇갈리게 되는데 이한복은 사망하게 되고, 최삼봉은 입적대표로 뽑히게 되며 현도네는 삭발을 한다. 이 사건이 바탕이 되어 창윤은 동규와 싸우다 다리가 부러지고, 또 이 때문에 북동예와의 혼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의 연장선에서 창윤이 청인지주 동복산의 송덕비에 불을 지르게 되고 이 때문에 아버지 장손이 청나라 순경에게 잡혀가 열흘간 모진 고문을 당하고 운명하게 된다. 이처럼 창윤은 소설의 두 주인공의 죽음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며 그 갈등의 초점이 청인들과의 대립이다.

---

<sup>8</sup> 김종욱, 앞의 글, p. 278

아버지의 죽음의 원인이 자신이 비각에 지른 불 때문에 열흘 동안 겪은 고초에서 얻은 병에 있다고 생각하니, 창윤이는 견딜 수가 없었다.

할아버지의 임종 전후가 생각났다. 감자 때문에 동복산이네 사람들에게 붙잡혔던 일, 변발 청복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손자를 보고 말도 못하던 일, 가위로 드리운 뒷머리를 자르다가 쓰러지던 순간의 철렁하던 가슴. …

두 번 다, 창윤 자신이 직접 동기가 되었다. 어쩌면 좋으냐? 통곡하려면 목이 메어 소리가 질러지지 않았다. 그러나 엄숙한 마음으로 생각하면 두 분의 혈관 속에 흐르고 있는 조선 사람이 그런 비통한 최후를 가져온 게 아니었을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피를 더럽혀서는 안된다.)<sup>9</sup>

이것은 아버지가 죽은 뒤 창윤이 스스로 하는 다짐이다. 이러한 민족의식이 어린 창윤으로 하여금 사포대를 지원하게 하였고, 또 고향에 돌아온 뒤에는 자기가 직접 나서서 사포대를 조직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제 2 부에 와서도 청인들과 이주민들 사이의 갈등은 주요 모순으로 등장한다. 청인들이 오면 이주민들은 불안하거나 수난을 당하고 청인들이 떠나면 이주민들은 편안한 나날을 보낸다. 긍정인물들에 대한 시련은 주로 청 관청이나 청인들의 대리인인 최삼봉을 비롯한 열외놈들에 의해 가해지는 모습이다. 사포대의 조직과 해산 모두가 청인들과 관련된다. 그러나 이 제 2 부에서 상당히 중요한 갈등의 정지 상태가 나타나는데 바로 <당신네와 우리는 같다>는 제 2 절이다. 감방에서 만난 청국 청년이 조선생이 했던 말과 꼭 같이 “당신네와 우리는 같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창윤은 청인을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받게 된다. 다시 말하면 주요 갈등의 원인도 청인이요, 화해의 모티브도 청인이라는 점이다. 2 부 후반부로 가면서 일본의 통감부 설치가 중요한 사건으로 떠오르면서 청인과 일본인들 사이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 갈등이 주요 모순으로 부상한다.

제 3 부에서는 청인세력과 일본세력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만주” 한인 이주민들의 고통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이주민들의 의지가 전경화된다. 이 가운데서 일본의 침략 본질이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해 드러나게 되고(토지 매입, 제련소 건설 등) 이주민들 사이에서는 청인세력에 의지하자는 의견과 일본세력에 의지하자는 의견이 대립하게 된다. 현도와 창윤의 향방이 달라지는 것도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비봉촌 이주민들은 청인, 호적 등의 등살에 못 이겨 하나 둘 비봉촌을 떠나게 되고, 마침내 창윤도 정수의 학교 문제로 대교동으로 이사한다. 이와 같이 제 3 부의 갈등은 청인과 일본인에게서 오는 조선인들의 이중시련과 이 두 세력 사이에서 방황하는 조선 이주민들의 갈등이 주를 이룬다.

<sup>9</sup> 안수길, 『북간도』, 중앙일보사, 1987, P. 115.

이상의 고찰에서 봤을 때 『북간도』의 전반부는 조선 이주민들과 청인, 일본인들과의 갈등을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가 주목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청인들과의 갈등이든 일본 침략세력과의 갈등이든 아니면 청인들의 대리인 기능을 하는 최삼봉을 비롯한 얼퇴놈과의 갈등이든 모두 민족의식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는 점이다. 농경민 특유의 땅에 대한 집착이 서사갈등을 낳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 갈등의 대상이 청국 관현이나 청인 지주, 또는 일본 세력이라는 점은 갈등의 초점이 민족갈등이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작품의 전반부가 이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복원함으로써 역사의식을 획득했다고 하지만 그 일상적인 삶의 중심에 민족의식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작품의 후반부에 오면 이러한 민족의식은 더욱 강화된다. 제 4, 5 부는 1910 년 무렵부터 일본이 패망하던 1945 년까지 간도의 용정과 훈춘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창윤이 대교동으로 이사를 가면서 땅을 소유하기 위한 청인과 조선인 간의 갈등과 대립은 사라지고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전면에 부상하게 된다. 창윤의 아들 정수가 주인태 교사와의 인연을 바탕으로 독립운동에 적극 투신하면서 서사의 주체로 등장한다. 작품 후반부에서 주인공인 정수는 전반부에서의 이한복이나 장손, 창윤처럼 가상의 장소(비봉촌)에서 허구적인 사건들을 통해 형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용정이라는 실재 공간에서 많은 실재 역사적 사건들에 직접 가담함으로써 서사가 인물 중심보다는 사건 중심으로 흘러가게 된다. 용정 만세 사건, 용정 조선은행 15 만원 강탈 사건, 청산리 대첩, 봉오동 전투 등 역사적 사건의 현장에 주인공 정수가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조선인과 일본 침략 세력과의 갈등이 모순의 초점으로 떠오르고, 정수를 비롯한 긍정인물들의 항일투쟁이 전경화된다.

이처럼 『북간도』는 갈등의 측면에서 분석할 때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데 전반부가 청인들과 조선 이주민들의 갈등 중심이라면 후반부는 일본 침략 세력과 조선 이주민들 사이의 갈등 중심이 된다. 청인들과의 갈등이든 일본 세력과의 갈등이든 그 본질에 있어서는 모두 민족의 주권회복과 정체성 획득이라는 민족주의 의식과 갈라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북간도』는 서사갈등의 일관성을 유지하였다고 할 수 있다.

혹자는 가족사 소설로서의 성격에 주목하면서 『북간도』를 세대 간의 갈등구조로 파악하기도 한다<sup>10</sup>. 하지만 이는 1930 년대 한국 가족사소설과의 비교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이 소설의 변별성을 간과한 소치라고 할 수 있다.

『북간도』에서 우리가 눈 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가문의 서사 속에서 개인들의 성격이나 다양성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한복, 장치덕,

<sup>10</sup> 송준호, < ‘북간도’ 의 갈등구조 연구 >,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7 년, p. 13

최칠성으로 대표되는 세 인물의 성격들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그대로 전이되면서 서사적 갈등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근본적인 의미에서 세대갈등은 존재하지 않고 세대의 성격적인 계승과 반복만이 존재한다. 『북간도』의 가족 구성원들은 개별적 성격을 획득하기보다는 가문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가족적인 성격을 부여받는다. 그리하여 세대는 교체되지만 연속성의 원리에 의하여 인물들은 부단히 반복 재생산된다. 이한복, 장치덕, 최칠성의 모습은 이후의 세대들에 의해 극복되어야 할 과거의 표상이 아니라 모방되어야 할 권위의 상징이 되는 것이다. 물론 최동규와 같은 경우는 부모세대와 약간의 갈등을 보이기도 하지만 작품 속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함으로써 세대갈등의 서사구조적 의미를 지니지는 못한다. 이러한 양상은 염상섭의 『삼대』를 비롯한 1930년대 한국 가족사 소설의 경우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염상섭이나 채만식의 경우 한 가족 내에서의 세대 갈등이 큰 의미를 지녔다면, 『북간도』의 경우는 세대 간의 갈등보다는 가문 사이의 갈등이 서사구조상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사소설의 특징에 기초하여 『북간도』의 갈등구조를 고찰할 때 그것을 세대 간의 갈등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가문 간의 갈등으로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그 가문 간의 갈등 심층에는 민족갈등이 내재해 있는 것이다. 『북간도』에서의 가족은 나라를 잃은 민족의 환유적 상징으로 기능한다. 그러한 사실은 이한복 가문과 최칠성 가문의 갈등 속에 조선인과 청인 사이의 갈등 관계가 내재해 있고, 이한복과 장치덕 가문의 갈등 속에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갈등이 내재해 있는데서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하겠다. 이한복과 최칠성의 갈등은 비록 세구라고는 하지만 소설 속에서는 청국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문제에서 빚어지는 것이고, 이한복 가문과 장치덕 가문의 갈등은 주로 창윤이와 현도라는 이민 3세들을 통하여 일본의 침략세력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문제에서 표면화된다. 이렇게 보았을 때 조선인 가문 사이의 갈등의 바탕에는 늘 민족갈등이 내재해 있었고, 가문의 갈등은 사실 민족갈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나의 표층구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고찰에서 알 수 있듯이 안수길의 『북간도』는 민족갈등 중심의 서사로 일관하면서 이러한 갈등을 통해 민족의 주체성 의식을 강조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 3. 계급갈등 중심의 서사 -- 『두만강』

이기영의 『두만강』은 안수길의 『북간도』와는 달리 항일민족해방투쟁으로 대표되는 민족주의 의식의 산물인 민족갈등을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이라는

이원적 대립구도의 하위개념으로 파악하고 계급사관에 입각하여 역사를 재구성한 소설이라 할 수 있다. 『두만강』의 제반 갈등양상을 살펴보면 그것은 계급대립의 서사라는 점이 분명하게 안겨 온다.

『두만강』에 등장하는 갈등양상 중에서 우선 주목하여야 할 부분은 작품의 첫머리부터 나타나는 지주계급과 농민들 사이의 갈등이다. 작품은 주인공 곶손이와 그 주변 인물들, 그리고 작품의 무대가 되는 송월동에 대한 소개가 있는 후 바로 서울 한판서의 손자 한길주의 낙향을 시작으로 농민과 지주 계급의 대립을 전경화시킨다. 소설의 전반부에서 이러한 대립은 곶손이와 한길주 사이의 갈등으로 대표되면서 소설 속에서 가장 중요한 서사골격을 형성하고 있으며, 곶손이의 아들 씨둥이가 송월동을 떠나 무산, 만주 지역에서 항일 혁명투쟁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이 전경화된 작품의 후반부에서도 지주계급과 농민계급의 갈등은 이춘실, 김덕성 등과 김진해의 갈등으로 전이되면서 그 갈등구조가 해소되거나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된다.

1 부의 배경되고 있는 송월동은 주민 다수가 빈농인 마을이다. 이 마을에 한길주가 낙향을 하면서 지주계급과 농민계급 사이의 갈등이 초점으로 등장한다. 한길주는 이 마을에 살던 한판서의 손자로 서울에서 벼슬살이를 하다가 개화당 때문에 수구당이 밀리게 되니까 시골로 내려가서 재물을 긁어 모아보자는 속셈으로 낙향한다. 그의 조부인 한판서가 송월동 주민들에게 행한 착취는 악랄했던 것으로 서술되고 있으며, 이제 그의 손자인 한길주까지도 대를 이어 악행을 일삼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낙향 소식을 접하자 그의 횡포가 미칠 것을 염려하면서도 별 다른 저항 없이 순응적인 태도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곶손이의 경우는 다르다. 그는 작인에게 강요되는 부역이 부당한 처사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반발하여 자신의 농사일에만 전념한다. 그리하여 소설 속에서 계급대립이 처음으로 첨예하게 초점화되는 부역사건이 터진다.

부역사건은 갈등이 첨예화되고 소설의 긴장 관계가 처음으로 고조를 이루는 장면이다. 부역에 이어 곧바로 토지분쟁사건이 터지며 곶손이와 한길주의 대립구도는 더욱 강화된다. 작품의 초반부에서 펼쳐진 이러한 계급갈등은 사실 반상갈등을 기반으로 하는 신분갈등과 동등한 흐름선에서 파악할 수도 있다. 그것은 지주계급과 양반, 농민계급과 상민이 언제든지 치환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거기에서 조금 거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진사의 아들인 이진경이라는 인물 들 수 있다. 하지만 이진경의 경우는 조금 특이하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진경은 사실 농민들과 같은 입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본에 대한 민족적인 원한에 있어서 이진경은 상당히 강렬한 편이지만 신분제도에 있어서는 아직도 어느 정도 고답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계급갈등이 심화되면서 신분갈등은 점차적으로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의 대립과 갈등의 양상으로 변모하게 된다. 봉건사회에서



신분갈등이 주요모순이었다면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유산자와 무산자의 갈등이 주요모순으로 부상하게 된다. 봉건사회에서 양반과 상인으로 대표되던 두 세력은 자본주의사회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질서에 의해 계급이 재편성되는 데 그 기준이 바로 돈이 된다. 돈 있는 양반과 돈 있는 상민이 하나의 계급으로, 돈 없는 상민과 돈 없는 양반이 하나의 계급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현실모순에 대한 이기영의 이러한 정확한 파악은 봉건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로 진입하는 역사적 흐름에 대한 작가의 예리한 통찰력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두만강』에서의 계급갈등은 이처럼 신분계급 갈등이나 유산자와 무산자의 계급갈등으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 조선이 처한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 사이의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소설 속에는 식민지 조선의 근대화 또는 자본주의화 과정이 여실히 드러나는데 경부선 철도공사, 개간공사, 제사공장 설립, 금광 개발, 토지조사 등이 바로 그러한 과정을 반영한 예라고 하겠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양척식회사 설립으로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의 대립이 첨예하게 나타나는 부분(2부의 18장 <여우와 이리떼> 참조)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의 대립을 통해 이기영은 민족내 계급간의 갈등이 식민주의자의 침략에 의한 민족의 갈등으로 변모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이것은 또한 당시 조선사회가 자본주의사회에서 식민지 자본주의 사회로 변모해가는 역사적 흐름에 대한 총체적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두만강』의 계급갈등 구조는 이 작품의 주제인 항일민족해방운동의 형상화라는 측면에서 가장 뚜렷하게 부각된다.

『두만강』에서 일제의 침략에 대한 산발적인 투쟁에서 벗어나 전 조선인의 집단적인 저항을 보여준 것은 3.1 운동이다. 3.1 운동은 이 작품 속에서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형상화하고 있다. 소설은 3.1 운동의 핵심은 민중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반면, 민족대표 33인은 나약하고 비겁한 민족주의자로 묘사되고 있다. 그리하여 지도층의 독립의식이 소극적이고 나태하게 그려진 반면, 민중들 사이에서 일어난 만세 시위는 매우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을 보인다. 또한 3.1 운동이 민족 자결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러시아 10월 사회주의 혁명의 영향에 의한 조선인들의 민족적 자각과 행방의식이 표출된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낸다. 이러한 주장은 북한의 역사인식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서 상당한 정치성을 띠고 있다.

주인공의 행위를 통해 관찰해 보면 아버지 박곰손으로부터 시작된 항일투쟁은 아들 씨동에 와서 조선반도와 “만주” 지역을 무대로 전경화되고 계급갈등은 주로 지배계급으로서의 일본 침략세력과 피지배계급으로서의 조선인들 사이의 갈등으로 표면화된다.

씨동은 아버지의 사망 이후 가족을 이끌고 “만주”로 들어가면서 사상전환의 계기를 맞이한다. 자신이 해오던 의병활동에 회의를 품게 되었고, 독립운동은 뒷전에 미루어둔 채 세력다툼만 일삼는 독립군에 대해서도 실망하게 된다. 새로운 투쟁방식을 모색하던 중 씨동은 연길감옥에서 최혁을 만남으로써 사회주의 사상을 접하게 되고 노동자 계급이 주도하는 항일투쟁으로 전향하게 된다. 그리하여 작품의 후반부에서는 의병이나 독립군의 한계를 극복한 투쟁방식으로 항일유격대의 창건과 그들의 활동이 부각된다. 이것은 사회주의 계급투쟁노선과 북한의 정치적 정체성을 극명히 드러낸 것으로 씨동도 궁극적으로는 이 항일유격대에 가담함으로써 노동자 중심의 계급투쟁이 당위성을 획득하도록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작가 이기영에게 있어서 항일투쟁으로 대표되는 민족갈등이나 식민지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드러나는 지배와 피지배 계층의 대립이나 아니면 반상 신분갈등이나 지주계급과 농민계급 사이의 대립이나 모두 계급갈등이라고 하는 하나의 연속선상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이다. 작가의 이러한 계급의식과 역사인식은 작품의 곳곳에서 드러난다. 반상갈등과 조일민족갈등의 연관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이진경의 대화를 통해 그 단면을 보기로 하자.

왜놈들은 우리 조선을 옛날부터 침략하였지요? 임진 조국 전쟁도 그래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 그러나 그 때는 더러 어진 양반들이 백성들과 협력하여 원수를 쳐물리치고 나라를 구원하였는데 근자의 양반들은 왜놈을 쳐물리칠 생각은 고사하고 도리어 왜놈과 야합해서 백성을 쳤습니다. 갑오년 동학 난리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양반들은 백성의 피를 굽기에만 눈이 벌개서 날뛰었지요. 이런 것을 백성의 안목으로 볼 때, 왜놈이나 조선 양반이나 무엇이 다릅니까? 그들의 눈에는 똑같이 보일 것입니다. 똑같은 원수로 보일 것입니다. 다를 게 뭐예요? …… 조선을 통으로 삼키려는 왜놈이나, 백성을 통으로 먹으려는 양반이나, 도대체 무엇이 다르냐 말이에요? 누님! 우선 작년 봄에 이 고을로 철로를 들이밀 때 왜놈들은 각 동리로 돌아 다니며 강제로 부역을 징발하고, 백성들한테 행악질이 무쌍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읍촌을 망라하고 소위 유력자라는 양반들이, 환난을 겪고 있는 백성을 위하여 무슨 도움을 주었습니까? 왜놈한테 한마디 말로라도 불의를 책망한 사람이 누가 있었나요? …… 도리어 형님은 철로 공사에 부역을 나가라고 남 먼저 그들을 내몰지 않았습니까? …… 이게 왜놈의 하는 짓과 무엇이 다르냐 말이에요? …… 그러니까 가난한 백성들은

양반이나 왜놈을 똑같이 보는 것입니다. 똑같은 불공대천지 웬썩로 보고, 그들은 양반이 망하기를 축수하는 거야요.<sup>11</sup>

이것은 이진경이 자기 누이인 이씨 부인(한길주의 처)에게 하는 말이다. 소설 속에서 이진경이 의식층위의 계몽자적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기에서 작가는 이진경의 입을 빌어 양반세력과 일제 침략세력의 본질적 동일성, 연관성, 그리고 계급적 갈등의 일치성을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사회현실에 대한 이와 같은 심각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진경의 경우 본인의 사회적 기초가 양반 귀족이었다는 역사적 제한성으로 인하여 혁명의 선두에 서지 못하고 하나의 교양자적 역할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 그가 곱손이를 만나게 되었다는 점은 플롯 전개상 상당히 의의 있는 일이다. 그것은 역사발전의 진정한 주인은 대중일 수밖에 없다는 작가의 사상이 여기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두만강』에서 보여준 갈등의 양상은 민족갈등, 신분갈등, 토지갈등, 식민지갈등 등 여러 가지지만 작가 이기영에게 있어 그러한 것들은 모두 계급갈등이라는 하나의 고리로 연관지어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사회주의혁명이론의 당연한 귀결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두만강』은 작품 전체에 걸쳐서 이러한 계급갈등 중심의 서사구조를 유지함으로써 사회주의 계급사관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북한의 정치적 정체성이 작품에 오롯이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4. 애정갈등 중심의 서사 -- 『눈물 젖은 두만강』

최홍일의 『눈물 젖은 두만강』은 갈등의 전개양상으로 살펴보았을 때 상기 두 작품과 상당히 다른 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작품에도 민족갈등이나 계급갈등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만주”라고 하는 특정 공간에서의 하나의 큰 배경을 이루고 있을 뿐 서사의 중심에 위치해 있지는 않는다. 이 작품의 서사구조는 표면적, 외연적으로는 애정갈등을 중심으로 하나로 묶여있다고 할 수 있다.

소설 속에서 주인공 팔룡이는 고향이나 다름없는 용드레촌을 떠났다가 9 년이 지나서야 다시 고향에 돌아온다. 이 9 년간의 시간이 소설에서는 공백으로 나타난다. 9 년 이후의 회상을 통해 그간의 사정이 일부분 소급 제시되기는 하지만 서사시간에 있어서 이 9 년간은 공백이다. 작중 주인공의 9 년간의 공백을

---

<sup>11</sup> 이기영, 『두만강』, 사계절출판사판, 1989년 3월 ②p.31)

가져온 공간이동이 이루어진 셈인데 그 이유는 철저히 봉녀 때문이었다. 민족갈등이나 계급갈등이 아닌 애정갈등에 의해서 주인공이 9 년간 작품의 주무대인 용드레촌을 떠남으로써 서사의 공백이 생기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애정갈등의 심층원인을 고찰해보면 그것은 단순한 애정갈등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팔룡과 봉녀의 혼인이 시련을 겪게 되는 근본원인은 바로 땅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작품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계급갈등과 민족갈등이 하나의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계급갈등과 민족갈등은 엄연히 구분되는 두 개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기영의 경우처럼 민족갈등이 그 본질에 있어서 결국은 계급갈등의 하나라는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만주” 이주민들의 간도 개척사 서술을 목적으로 하는 이 작품의 성격상 땅에 대한 농민들의 집착과 의존이 각별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 점에서 민족갈등과 계급갈등이 모두 하나로 체현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계급적인 갈등과 민족적인 갈등이 모두 청인지주와 이주민의 갈등으로 표면화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전경화되고 있는 갈등은 이러한 제도적인, 이데올로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존과 가장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땅의 문제와 일상적인 삶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애정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이 작품의 서사시간과도 밀접히 연관된다. 『눈물 젖은 두만강』은 “만주”에 대한 일본 침략세력의 본격적인 침투가 시작되는 1907 년에서 막을 내린다. 이것은 외세의 침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전개된 이전의 역사과정에 대한 재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과의 갈등은 작품의 말미(마지막 2 개장)에 조금 언급되었을 뿐 작품 전반에 걸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이주민 사이의 갈등, 청인 지배층 내부의 갈등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소상하게 묘사되고 있는데 이러한 계층 내부 갈등의 중심에 애정갈등이 자리한다.

생존 문제와 연관된 땅의 갈등과 생활의 문제와 연관된 애정 갈등은 이 소설을 관통하고 있는 두 개의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소설 속에 나타난 이러한 갈등의 전경화 정도를 살펴봄으로써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소설 속에서 중요한 갈등은 애정, 토지, 민족, 종교, 교육, 항일과 같은 모티브들을 통해 구현된다고 할 수 있다. 제 1 장으로부터 제 19 장에 이르는 내용 중에서 제 7 장과 제 16 장, 제 17 장, 제 19 장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장에서 복잡한 애정갈등이 소상하게 묘사되고 있다. 하지만 토지와 관련된 모티브는 3 장, 5 장, 6 장, 7 장, 12 장, 14 장, 16 장 등 7 개장에서 묘사되고 있고, 교육과 관련된 모티브는 3 장, 17 장에서, 민족과 관련된 모티브는 4 장에서, 종교와 관련된

모티브는 15 장, 17 장에서, 항일과 관련된 모티브는 18 장, 19 장에서 묘사되고 있다. 특히 제 3 장과 같은 경우는 토지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 갈등 양상이 애정갈등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토지에 남다른 집념을 보이는 이주민 김삼수는 자신의 땅을 넓히기 위해 딸 봉녀를 청인 늙은이 장씨에게 허락해주지만 봉녀는 이미 팔룡과 저희들끼리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서 가문의 토지문제로 애정갈등을 겪게 된다. 이 애정갈등 관계는 그 뒤 청인과 봉녀의 이혼, 팔룡의 불행한 결혼생활, 팔룡과 봉녀의 재결합, 봉녀와 팔룡의 도주 등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작품 속에서 하나의 서사적 축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애정갈등을 서사의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이 소설 속에는 수많은 애정 삼각관계가 부각되고 있다. 팔룡의 경우 봉녀와 고분이, 용달의 경우 최훈장의 딸 삼월과 청인 지주 동령감의 과부 딸, 삼월의 경우 용달과 석준, 선창택의 경우 충공보와 오강, 팔룡의 동생 옥녀의 경우 만복과 윤삼, 만복의 경우 옥녀와 용달네집 드난살이 여인 등이 실타래처럼 복잡한 삼각관계로 얼키설키 엉켜 있다. 삼각관계를 토대로 인물들의 관계를 전개시키는 것은 그 자체가 통속적일 수도 있다. 그리고 소설 『눈물 젖은 두만강』이 이러한 통속적인 재미에 많은 호소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볼 때 남녀관계란 가족 형성의 기본적인 틀이기 때문에 가족형성의 여러 가지 유형을 드러낸 것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애정갈등의 바탕에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나 “만주”에서의 안착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상호 이용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애정갈등 속에 역사적 현실이 잠복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성에 대한 지나치게 노골적인 묘사라든가 플롯 전개상 별 의미가 없는 애정관계에 대한 지루한 서술, 인물의 성격형성이나 발전에서 중요한 모티브로 기능하지 않는 애정행각에 대한 무차별한 구체적 서술 등은 분명히 이 소설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애정갈등 중심의 서사구조를 지니게 되면서 이 소설은 『북간도』나 『두만강』과는 구별되는 다른 한 가지 특징을 지니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소설에서 여성인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이다. 가족사 소설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북간도』나 『두만강』의 경우 가족의 질서가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서사의 중심에 당연히 남성이 위치해 있다. 하지만 애정중심의 서사구조를 지니고 있는 『눈물 젖은 두만강』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상기 두 작품에 비해 서사구조에서 여성의 전경화 정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 5. 갈등설정에 영향 준 요소들

작중 인물들 간의 갈등관계에 대한 이상의 고찰에서 우리는 안수길의 『북간도』는 가문간의 갈등을 서사의 표층에 배치하여 그러한 가문들이 대표하는 민족갈등을 중심축으로 하여 서사골격을 형성한 소설이고, 이기영의 『두만강』은 사회의 기본 모순을 계급모순으로 파악하고 주인공들이 겪는 계급갈등을 고리로 하여 민족갈등, 애정갈등 등 여타 갈등을 내재한 소설이며, 『눈물 젖은 두만강』은 간도 개척사를 재구성함에 있어서 애정갈등을 중심축으로 하여 서사를 이끌어가면서 그 내면에 민족갈등, 계급갈등을 반영한 소설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세 소설이 이처럼 갈등의 양상에서 이질적인 측면만 보여준 것은 아니다. 이 소설들을 “민족적 정체성 지키기”의 소설로 읽었을 때 이 세 소설이 보여준 동질성 또한 뚜렷하다. 『북간도』의 경우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변발 흑복에 대한 주인공들의 태도나 백두산정계비에 대한 입장, 여러 가지 갈등관계 속에서 결국은 항일투쟁에 직접 참여하게 되는 제 4 대 주인공 정수의 형상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난다고 하면, 『두만강』의 경우는 부자 2 대에 걸친 국권회복을 위한 항일투쟁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그렇다면 『눈물 젖은 두만강』의 경우는 어떠한가? 작품의 곳곳에 나타나는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 대한 찬양과 동경, 고구려와 발해에 대한 긍지, 치발역복에서 보여준 주인공들의 당당한 태도, 청나라 관청과 일본세력 사이에서 조선 이주민들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는 석준의 형상 등에서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잘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 세 작품의 갈등설정에 영향을 준 요소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안수길에게 있어서 문제는 왜 민족갈등이 이처럼 중요하게 작용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다른 두 작가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안수길의 창작 환경은 가장 자유로웠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안수길의 경우 이러한 자유로운 글쓰기 환경은 창작에 대한 주변의 사회적인 구속이 그만큼 적었다는 말이 된다. 이 말은 작가가 역사를 소설화함에 있어서 충분히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역사를 이해하고 평가하고 형상화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북간도』에서 작가가 민족의 주체성을 정면에 내세운 이유 역시 안수길의 개인적인 선택이라는 말이 된다. 따라서 『북간도』가 이처럼 강조하는 민족의식의 실마리는 안수길 개인의 역사체험이나 역사 인식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안수길은 메모첩에 이런 말을 남겼었다. “북간도를 쓰고 싶었다. 북간도를 배경으로 북간도를 쓰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힘껏 썼다. 그러나 이런

형식의 이런 것밖에 되지 못했다. 무슨 말이 있으랴.”<sup>12</sup> 내용으로 보아 『북간도』를 금방 쓰고 난 다음의 심경을 적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자기가 가장 쓰고 싶은 작품을 다 쓰고 냈을 때의 안도감과 허탈감 같은 것이 잘 드러나는 문구이다. 그만큼 그에게 있어 북간도는 하나의 떨쳐버릴 수 없는 정신적 고향이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예전에도 북간도를 많이 썼었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북향보』를 들 수 있다. 그러면 그는 왜 꼭 『북간도』를 또 썼어야만 했을까? 『북향보』에서 쓴 북간도를 꼭 다시 써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잘 알려지다시피 『북향보』는 위만주국의 국책성격을 지닌 『만선일보』에 연재된 장편이다. 따라서 『북향보』에는 만주국의 국책부응적인 성격이 짙게 드러난다. 그것은 발표지면의 성격에서만 연유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내용면에서도 그렇다. 안수길의 광복 전의 작품들을 보면 전기 간민의 비참한 운명에서 위만주국 건국 후 조선족 이민의 정착과 제 2의 고향 건설문제에 대해 ‘문화 개척민’답게 안수길은 전체적인 재현을 시도하고 있다. 전기 간민의 암담한 운명에 대한 재현에서도 그렇고, 위만주국 건국 후 더러 당국의 시책에 영합하고 일제강점 하 조선족 이민의 비참한 생활에 대해서는 더러 외면하고 있는 후기 작품을 통하여 작가가 보여준 현실인식의 자세는 단 한 가지였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생존을 위한 길의 모색이다. 즉 작가 자신의 표현을 빈다면 “어떻게 사느냐”하는 문제의 모색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무엇이나”가 삶의 근원적인 이유를 묻는 존재론적 질문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는 생존차원의 삶의 방식의 문제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안수길은 일제 치하의 간도에서 민족생존의 길을 찾아 나섰는데 그것이 바로 『북향보』에서 보여주었던 현실타협적인 길이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중국인 원주민과도 그렇고 일제와 그 괴뢰 당국과도 그렇고 타협과 굴종을 표면화시키면서 비교적 온건한 방식으로써 민족의식을 지켜나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친일적 혹은 비 민족적이라는 현실인식의 태도가 문제시되는 것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해방 이후 한국으로 귀환한 안수길에게 있어 『북향보』는 하나의 아픔이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시 간도에는 안수길이 생각하는 타협의 길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반항과 투쟁으로써 이주민족의 생존권을 쟁취해보려는 강경애나 이육사, 윤동주 등의 문학도 있었던 것이다.

이런 흐름에서 본다면 안수길은 『북간도』를 창작함으로써 그러한 아픔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간도』가 안수길의 작가적 원형질을

---

<sup>12</sup> 안수길, 『북간도』(작가의 말), 중앙일보사, 1987년 12월

이루고 있는 만주 체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라는 김윤식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안수길은 기억의 심층으로부터 북간도를 잊기 위하여 『북간도』를 썼던 것이다. 그러다나니 그 『북간도』의 핵심에 『북향보』에서 아쉬웠던 민족갈등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두만강』의 경우는 좀 다르다고 하겠다. 그것은 당시 북한의 사회 환경으로 보았을 때 안수길의 경우처럼 자신의 체험이나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작품의 주제를 설정할 수 있을 만큼 글쓰기가 자유롭지 않았다. 당성, 인민성의 요구에 따라 작품의 주제를 설정하고 또 그러한 주제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갈등설정이 필수불가결한 시기에 이기영은 『두만강』을 창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북한사회로부터 공정을 받게 된 것이다.

이기영의 경우 그의 작가적 역량은 『고향』을 통해 이미 잘 알려진 바대로다. 사실 『두만강』에서도 그의 작가적 역량은 다시 한 번 확인된다고 할 수도 있다. 제 1 부에서 송월동을 중심으로 펼쳐진 양반 지주계급과 농민계급 사이의 갈등은 식민지 조선 사회의 축도라고 해도 좋을 만큼 진실하고 디테일하게 그려지고 있다. 작품의 갈등관계는 두 계급의 대표격인 곶손이와 한길주로 압축되면서 팽팽한 긴장감을 시종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제 2 부로부터 시작하여 작품의 공간이 간도, 무산, 서울로 확대되면서 작품은 긴장감이 떨어지고 우연성이 남발한다. 큰 공간에서 역사적 사실들을 허구적 인물들과의 연관 속에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 허구적인 인물들이 거대한 역사적 사건 속에 빠져 끌려다니는 형국이 되고 만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대로 이기영은 안수길이나 최홍일과는 달리 간도체험이 없는 상태에서 간도를 썼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기영은 왜 이런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굳이 간도와 무산 지방을 작품 공간으로 설정했던 것인가? 한국의 많은 연구들은 이것을 작가 이기영의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본고는 이것을 작가의 한계가 아닌 북한문학의 특수성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문학 창작환경으로부터 볼 때 이기영의 『두만강』은 그 구상에서부터 이미 주인공 씨동이가 “김동지”가 이끄는 항일유격대로 찾아가는 결말을 미리 상정했을 것이다. 소설 속 인물이 자체의 성격과 사회 환경과의 대결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이데올로기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글쓰기 환경에서 이기영의 선택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기영의 경우 의도적으로 주인공 박곶손이를 무산지방에 머물게 함으로써 서사의 공간을 체험부재의 “만주”로 완전히 옮기지 않고 한반도와의 연결고리로 남겨두는 등 나름대로 많이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주인공의 향방이 작가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작품의 대립과 갈등도 계급성, 당성, 인민성의 요구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회의 기본 갈등을 계급모순으로 파악하는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에서 본다면 『두만강』과 같은 대하소설에서 계급갈등을 서사의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또한 서사에서 무리가 오더라도 노동자, 농민계급의 계급적인 각성을 대대적으로 부각시키지 않을 수 없다. 그 한 예로 『두만강』에서 최원식, 이상경 등 연구자들에 의해 인물성격에 반하는 행위로 지적되고 있는 박곰손의 연설장면을 북한에서는 “전형적인 것을 심오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표현”한 것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sup>13</sup> 이것은 이기영의 선택이 북한이 요구하는 당성, 인민성, 계급성의 요구에 부합된다는 것을 설명한다. 따라서 이기영의 이러한 주제설정은 북한사회의 이러한 창작 환경과의 연관 속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그러면 최홍일의 경우는 어떠한가? 최홍일이 『눈물 젖은 두만강』을 창작한 시기는 중국에서 개혁개방을 실행한 후 문예창작이 전시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상당히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던 시기다. 하지만 최홍일의 경우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중국 조선족 작가의 이러한 창작자유가 보장되기 직전의 경험이다. 그는 북한과 비슷한 창작 환경 속에서 지내다가 사상해방을 맞아 표현의 자유, 주제설정의 자유, 제재의 자유를 획득한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억눌렸던 부분에 대한 반동심리가 상당히 큰 반작용으로 힘을 발휘했음은 분명하다. 작가가 애정중심의 갈등을 작품의 표면에 내세워 대중소설적인 방식으로 이민사와 간도 개척사를 접근했던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 있어 성(性)은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하나의 금지구역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금지구역이 개방됨에 따라 자연히 눈길이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최홍일이 『북간도』와 『두만강』을 읽어 보고나서 만족스럽지 않게 생각했다는 그 부분이 바로 두 작품의 주제로 설정된 민족의식과 계급의식의 이데올로기적인 성향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이래서 설득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통일문학사 기술의 거시적인 시각에서 볼 때 중국 조선족 문학은 북한문학을 이해하는 하나의 참조계로 기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

<sup>13</sup> 안함광, 『조선문학사』, 교육도서출판사, 1956년(한국문화사 영인본, 1999년 11월) p. 645

## 참고문헌

- 안수길, 『북간도』, 중앙일보사, 1987년  
이기영, 『두만강』, 사계절출판사판, 1989년 3월  
최홍일, 『눈물 젖은 두만강』, 민족출판사, 1999년 9월
- 강영주, <한국역사소설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6년  
김 몽, <민족수난사와 개척사를 폭넓게 펼쳐보인 최홍일의 ‘눈물젖은 두만강’>, 『문학과예술』, 1999년 6기  
김재용, <역사의 주체인 민중의 생활과 투쟁의 서사시적 형상화>, 이기영, 『두만강』, 풀빛, 1989년  
김종욱, <역사의 망각과 민족의 상상>, 『국제어문』 30집, 2004년  
송준호, <‘북간도’의 갈등구조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7년  
윤운진, <‘뿌리 찾기’와 ‘눈물 젖은 두만강’>, 『장백산』, 1996년 5기  
이상경, <이기영 소설의 변모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2년  
조남현, <‘두만강’을 통해 본 북한문학>, 『문학사상』, 1989년 6월  
최원식, <소설과 역사의 법칙성>, 『두만강』 해설, 사계절, 1989년  
최홍일, <북국의 땅 연변에서>, 『눈물 젖은 두만강』 (머리말), 삶과함께출판사, 1994년 10월
- 김병욱 편, 『현대소설의 이론』 (최상규 역), 대방출판사, 1984  
김윤식, 『안수길 연구』, 정음사, 1986년  
김윤식, 『북한문학사론』, 새미, 1996년 1월  
안수길, 『명아주 한 포기』, 문예창작사, 1977  
안함광, 『조선문학사』, 교육도서출판사, 1956년(한국문화사 영인본, 1999년 11월)  
임형택, 최원식 편, 『한국근대문학사론』, 한길사, 1982  
조남현, 『한국소설과 갈등』, 문학과비평사, 1988년  
조남현, 『소설원론』, 고려원, 1983
- L.A.코우저, 『갈등사회학의 기능』 (박재환 역), 한길사, 1980년  
호르스트 슈타인메츠/서정일 역, 『문학과 역사』, 예림기획, 2000년 2월